

# ‘세계적 축구도시 전주’ 면모 갖춘다

### 시, K-리그 개막전 관중 편의 증진 대책 추진 임시 버스노선 확대·주정차 진출입로 개설

전주시가 올해 K-리그 개막전을 앞두고 2017 FIFA U-20월드컵 개최도시의 위상을 떨치기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연구구단인 전북현대의 경기가 있는 날에는 축구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기관람과 교통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축구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구상이다.

2016 K-리그는 오는 12일 전주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 K-리그는 여느 해와는 달리 U-20 월드컵을 앞둔 해여서 축구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주가 세계적인 축구도시라는 자긍심을 확산시켜 나가

기 위해 시민은 물론 관중들의 각종 편의를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K-리그 평균 관중 1만8000여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전북현대 개막전의 경우 더 많은 관중들이 몰릴 것을 고려해 주·정차와 교통 및 수송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막전을 보기 위한 자가용 이용자가 1만8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 4879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2178면과는 별도로 경기장 내 도로 800면과 기린대로 400면, 온고을로 400면, 혁신로 800면 등 노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위치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부설주차장 300면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

차량들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전주시와 경찰서, 전북현대구단,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온누리교통봉사대 등 총 190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경기장 동쪽 주차장에서 호남제일문 방향에 임시 출구 개설을 마친 상태다. 이 출구는 향후 진출입로로 확대하고, 혁신로 방향인 중앙광장에서 면허시험장 방향의 진출입로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개 노선으로 운행하던 1994년 노선 임시운행 버스를 3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현대의 창단년도를 뜻하는 1994년 노선 버스는 개막전 당일 오전 10시 45분부터 21대의 시내버스를 확대

편성에 송천동과 아중리, 서신동·평화동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10~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또 기존 월드컵 경기장을 경유하는 7개 노선(1번, 2번, 71번, 309번, 413번, 414번, 416번) 시내버스 24대도 함께 운행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경기장과 전북도청을 오가는 셔틀버스 8대를 배치해 총 24회에 걸쳐 운행할 예정이다.

K-리그 개막전에서는 1000명분 정도의 대형 축구 비빔밥 퍼포먼스와 경품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가 2017 U-20월드컵 개최도시에 걸맞은 관중 편의시설과 서비스 지원을 크게 늘려 세계적인 축구도시로 위상을 떨치 나갈 수 있도록 집중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 진안농협 안전지점 강은경 대리 기지 발휘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칭찬’

농협 여직원의 기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을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다.

진안농협 안전지점(지점장 한요순) 강은경 대리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해당 농협을 거래하는 이모 씨가 평소와 달리 다급한 모습으로 A은행 장모씨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고객을 잘 알고 있던 강 대리는 “아들이 잠깐네요?”라고 물어봤지만 이모씨는 “고객이 사장 통장”이라며 송금을 재차 요구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강 대리는 보이스 피싱의 의심해 자금 사용목적 및 예금주를 물으며 최근 금융사기 피해사례에 대하여 거듭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씨는 “아들이 ‘사고 합의금’으로 급히 필요하며 울

먹이는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며 “아들 사정까지 걱정이지만”이라고 극구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자 강 대리는 “아들과 연락을 해야만 송금할 수 있다”고 이 씨를 설득한 끝에 결국 아드님과 통화를 했으며 아들로부터 ‘송금 하라고 통화한 일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아들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전화해서 “아들이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아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고 울먹이며 말하는 목소리가 틀림없는 아들인 것 같아 정신없이 농협에 왔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강 대리의 참작함이 아니었으면 아까운 돈을 날릴 뻔 했다”면서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버스조합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 9일 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마다 부정과 비리를 반복하는 전북버스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전북도에 촉구하고 있다.

##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민관 합동점검

### 26일까지 57개소 대상

전주시는 10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1단계로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자체점검(806개소)을 토대로, 전문가와 합동점

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57개소를 표본점검이 이뤄진다.

민·관 합동 안전점검 대상은 도시공원 9개소, 어린이집 9개소, 주택단지 34개소, 대규모 점포 2개소, 위생업소 3개소이다.

중점 점검분야는 △안전관리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여부 △안전점검 및 기록보관 △정기시설검사 미 이행

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상태(이용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놀이기구 개구부 진입통제, 놀이기구 결박)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 조치하고, 수리 및 교체를 요하는 사항은 보수·교체 일정 등 현장에서 확인을 받고 해당 기일 내 개선하도록 시정조치,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주체가 전문가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추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 선고기일 행적 감춘 사기범 보석금 몰수

전주지검은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선고공판에 불출석해 보석 결정이 취소된 A(37)씨에 대해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몰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억7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사기)로 지난해 7월 30일 구속 기소됐다가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두달 뒤 석방됐으나, 지난달 18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박용주 기자

## “인삼 팔아 갚겠다” 속여 돈 빌리고 안갚은 70대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9일 “인삼을 팔아 갚겠다”고 지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3월 인삼의 한 인삼포에서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4년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해 갚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김씨는 이미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작 중인 작물과 함께 인삼밭 소유권을 처분한 상태였으며, 사채 등 채무가 7억~8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주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조사특별위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조사

전주시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 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구)가 9일 전주권 소각지원센터, 광역매립장,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장 조사 활동에 나섰다. 이날 조사특별위는 특위 활동과 관련,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조사대상 시설

에 대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위탁 운영 실태와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주요시설(음식물류·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외 2종)의 기계설비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업체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문제점 등은 없었는지 확인했다. /김영재 기자

## 김제 자영고 기반조성 51억 지원

### 실습동 신축 등... 내년 3월에 마이스터고 개교

마이스터고인 김제자영고에 실습동 신축 등 기반 조성비로 51억 원이 지원된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자영고 마이스터고 기반 조성을 위해 실습동 신축 21억 원, 여학생 기숙사리모델링 9억5,000만원, 강당 리모델링 3억7,000만원 등 총 51억2,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김제자영고는 지난해 10월 농생명자원 생산·가공분야의 마이스터고로 지정됐으며 종자산업과· 첨단시설과· 식품가공과 등 3개 학과, 5학급·90명 정원으로 내년 3월 개교한다.

김제자영고 종자산업과는 종자 생산과 육종 업무를 배워 작물육종종사원과 체소작물 종사 생산원, 화훼작물 종자 생산원 등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 /고민형 기자

첨단시설과는 작물 생산시설과 시설재배장비 관리 등의 업무를 배우게 되며 원예생산연구원, 시설재배 환경연구원, 온실 재배 관리원 등의 진로를 걸을 수 있다.

식품가공과는 품질관리, 식품가공, 식품 유통 업무를 배우게 되며 식품분석 연구원, 식품 품질 검사원, 식품화학 연구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제자영고가 농생명 자원 생산 및 가공분야의 마이스터고로 본격 운영될 경우, 농업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과 맞물려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스터고는 전국적으로 47개 학교가 지정돼 43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는 군산기계공고와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매추산고 등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스피치·응변·면접·리더십·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응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당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당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 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